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외 외국어 숙달도 기준 (CEFR·ACTFL·WIDA) 비교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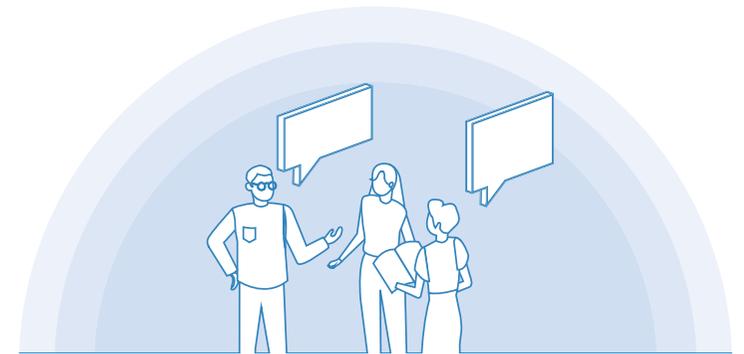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고 고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2020.11.27.))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 '언어지식'으로 구성되었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도 이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6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등급에는 총괄목표 및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중언어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어를 교육하는 다양한 언어문화 환경에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특정한 지역과 학습자를 한정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로 구성되어,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의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다중언어주의 : 다양한 층위의 언어지식과 언어 경험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별 언어 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한다는 관점

\* 상호문화주의 :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급별 총괄목표

6급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설득이나 권고,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급

사회 전반에 대한 소재와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거나 일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업무 보고, 협의, 체계적인 정보 전달,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동의와 반대, 지시와 보고, 생각이나 의도의 이해나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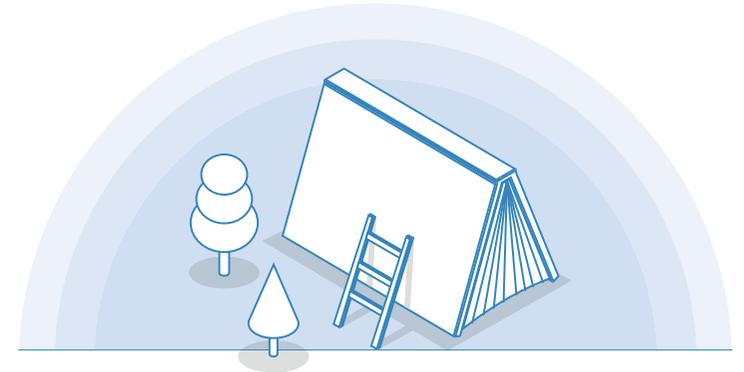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권유나 조언, 간단한 설명에 대한 이해나 표현, 정보 교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급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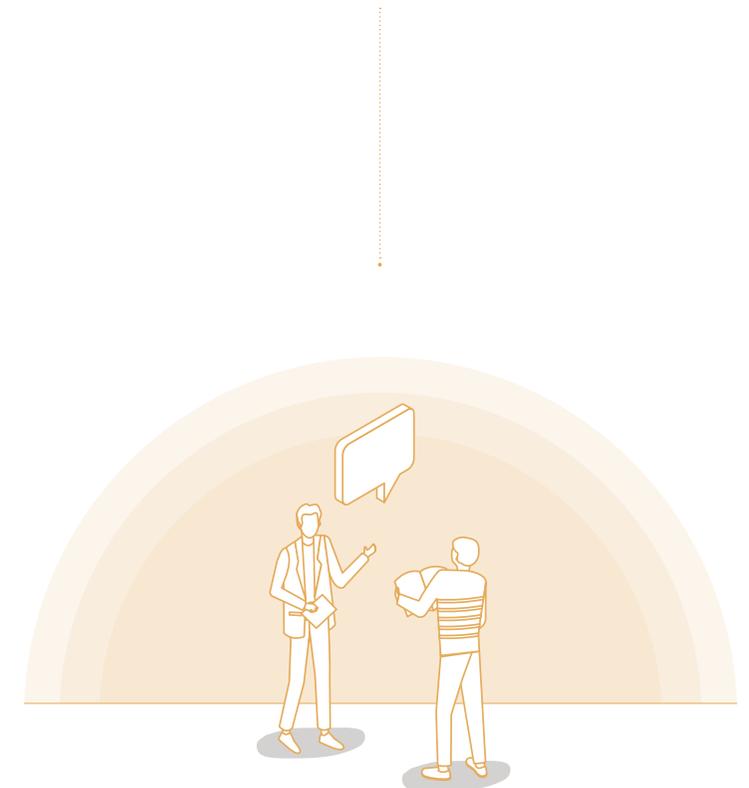
1급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국외의 대표적 외국어 숙달도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숙달도 기준에는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 전미외국어교육협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이하 ACTFL) 숙달도 등급 및 위다 영어발달기준(WIDA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tandards Framework; 이하 WIDA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 숙달도 기준은 모두 국제적 수준 혹은 국가 수준의 외국어 숙달도 기준으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의 특수성에 맞는 상세한 개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럽공통참조기준 (CEFR)

CEFR은 유럽 국가들의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 2001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개발되었습니다. CEFR은 현재 유럽 국가는 물론 여러 나라의 외국어 교육에서 참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 숙달도 기준입니다.

CEFR의 총괄 숙달도는 6등급으로 구성됩니다. A1과 A2는 일상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수준이고, B1은 친숙한 사회적 상황에서, B2는 추상적 주제를 다루는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C1은 사회생활, 직업 생활,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C2는 어떠한 구어, 문어도 쉽게 이해하며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18년에는 일부 상호작용 상황에 한하여 A1 이전 단계로 사전을 사용해 간단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인 예비 A1(Pre-A1)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CEFR 숙달도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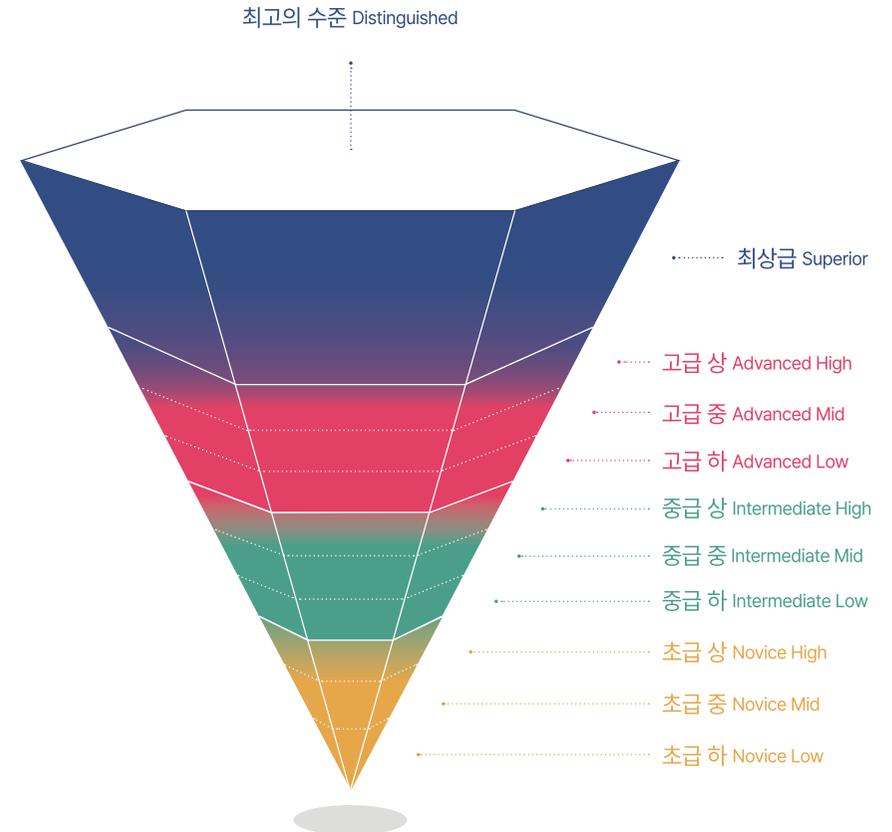
# ACTFL 숙달도 등급

ACTFL 숙달도 등급은 전 세계 학교와 직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합적 언어 측정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2년 전미외국어교육협회에서 개발하였습니다. ACTFL 숙달도 등급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의 평가에 적용되어 언어 능력 측정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ACTFL 숙달도 등급은 크게 '초급(Novice), 중급(Intermediate), 고급(Advanced), 최상급(Superior), 최고의 수준(Distinguished)'의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초급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주제나 분명하게 예측 가능한 단순한 주제에 관해 짧은 메시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중급은 일상적이고 익숙한 주제에 관해 언어를 구사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급은 모든 시제로 이야기하고 묘사할 수 있고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관심사 등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상급은 의견을 뒷받침하고,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며, 언어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중 초급, 중급, 고급 단계는 각각 상(High), 중(Mid), 하(Low)의 하위 단계로 세분화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ACTFL 숙달도 등급은 총 11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ACTFL 숙달도 등급은 매우 유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지식인의 언어 수행 단계(Distinguished)부터 실질적 언어 수행 능력이 거의 없는 단계(Novice Low)까지 언어 학습자의 숙달도를 모두 아우릅니다.

## [ACTFL 숙달도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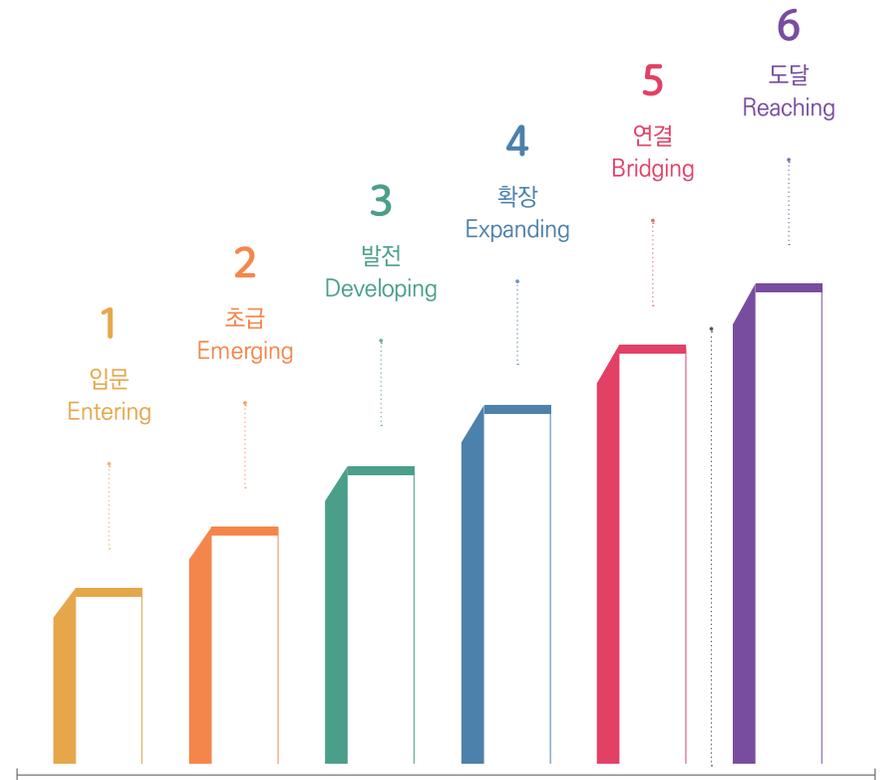
# WIDA 기준

WIDA 기준(WIDA Consortium, 2020)은 미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이하 K-12)까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과정입니다. WIDA 기준은 K-12 학습자가 사회적, 학문적 영어 두 측면에서 유창한 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영어 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WIDA 기준은 성취기준이 주제,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IDA 숙달도 등급'은 언어 차원인 담화(조직, 결속성, 언어의 밀도), 문장(문법적 복잡성), 단어/구(언어의 정확성)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숙달도는 총 6단계이며, 각 등급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단순문을 사용하는 수준인 1급은 입문(Entering), 전형적인 구조의 대화 및 전개를 사용하는 수준인 2급은 초급(Emerging), 다소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수준인 3급은 발전(Developing), 약간의 장르적 특성과 다양한 구조의 복합문을 사용하는 4급은 확장(Expanding), 장르 특성과 내용 지식이 나타나는 전개 구조 및 복합문을 사용하는 5급은 연결(Bridging), 장르 특성과 내용 지식이 나타나는 전개 구조 및 복합문을 매우 유창하게 사용하는 수준인 6급은 도달(Reaching)입니다.

WIDA 숙달도 등급은 K-12 학습자들의 학령에 따른 인지적 차이를 반영하여 학년군별(유치원, 1학년, 2~3학년, 4~5학년, 6~8학년, 9~12학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WIDA 숙달도 등급]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외 외국어 숙달도 기준 비교

CEFR, ACTFL 숙달도 등급, WIDA 기준은 국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기준입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역시 국제 통용성을 갖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과정과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초·중·고급으로 크게 구분되고 각각 두 개의 등급을 포함하는 6등급의 숙달도 체계입니다. CEFR, WIDA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6등급 체계로 구성됩니다. ACTFL 숙달도 등급은 다섯 개의 상위 등급으로 구분되나 하위 등급까지 포함하면 총 11개 등급의 숙달도 체계를 갖습니다.

네 가지 기준 모두 숙달도 최고 등급은 개방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언어 학습은 평생 계속되는 것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WIDA 기준은 6급을, CEFR은 6급에 해당하는 C2를 개방된 형태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ACTFL 숙달도 등급은 최고의 수준(Distinguished)을 개방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숙달도 등급 체계 비교]



6등급  
숙달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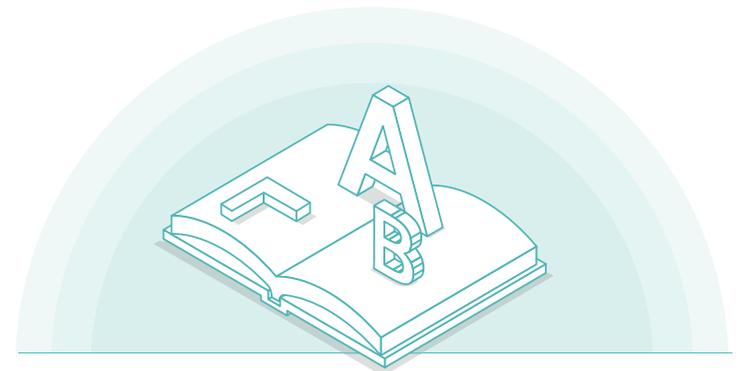
6등급  
숙달도 체계



11등급  
숙달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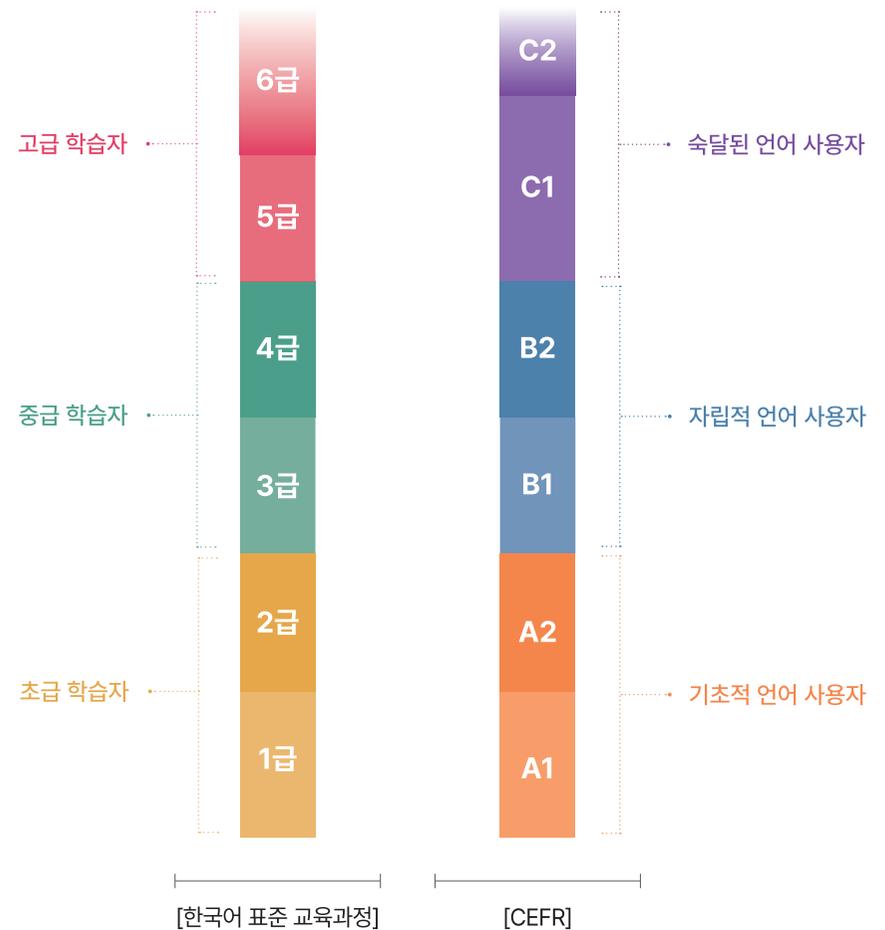
6등급  
숙달도 체계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과 CEFR 비교

CEFR은 초급과 중급 수준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초급, 중급 수준의 목표와 대응됩니다. 반면 CEFR의 C1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5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C2는 6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6급은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CEFR은 C1에서 사회생활, 직업 생활, 대학 및 직업 교육에서의 언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C2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CEFR의 C1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5급과 6급에 대응됩니다. 한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6급이 개방형임을 감안하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6급은 C1 일부와 C2 수준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과 ACTFL 비교

ACTFL 숙달도 등급은 전체적으로 초급과 중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 중급 수준의 목표와 대응되나, 상위 등급 목표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ACTFL 숙달도 등급의 가장 낮은 수준인 '초급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1급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1급은 ACTFL 숙달도 등급의 '초급 중'에 대응되고, 2급은 ACTFL 숙달도 등급의 '초급 상'과 '중급 하'에, 3급은 ACTFL 숙달도 등급의 '중급 중'과 '중급 상'에 각각 대응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4급과 5급은 ACTFL 숙달도 등급의 '고급 중'에, 5급과 6급은 ACTFL 숙달도 등급의 '고급 상'에 걸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ACTFL 숙달도 등급의 '최상급'과 '최고의 수준'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6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CTFL 숙달도 등급의 '최상급'은 CEFR의 C2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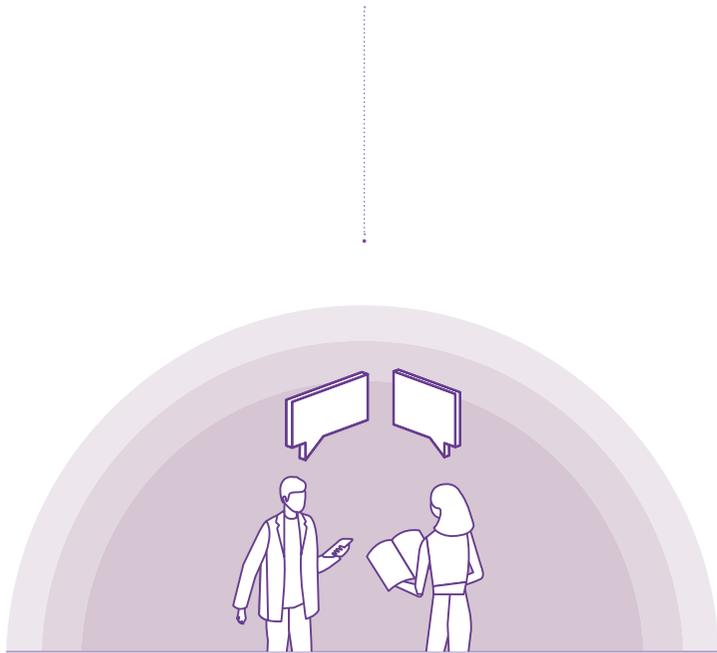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WIDA 기준 비교

WIDA 기준과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6등급의 숙달도 체계로 구성되며, 등급별 성취기준도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급(입문)은 정형화된 표현과 단순문을, 2급(초급)은 전형적인 구조의 대화 및 전개를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3급(발전)은 친숙한 격식적 상황에서 다소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4급(확장)은 약간의 장르적 특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고급인 5급(연결)과 6급(도달) 역시 사회적, 추상적 소재 및 전문 분야(장르적 특성), 학술적인 표현 등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외의 외국어 숙달도 기준 비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 언어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CEFR, ACTFL 숙달도 등급, WIDA 기준의 숙달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